

## 다카야마의 거리 풍경

에도 시대(1603~1867)에 성하마을(성곽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로 번성했던 시절의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다카야마시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거리 풍경으로 유명하다. 국가보호지구로 지정된 이 지역에서는 가옥의 형태나 색깔 등이 오래된 거리 풍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다카야마 주변의 산지는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쌀 대신 노동력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특별히 허가를 받았다. 8세기 초엽 일본의 초기 도읍지에서는 히다 지역의 장인들이 목조 건축에 종사했다. 그 후 수세기에 걸쳐 이 지역은 숙련된 목수와 목공 장인이 많은 곳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586년까지 히다의 권력이 무장 가나모리 나가치카(1524~1608)에게 집약되면서 다카야마 마을은 그의 성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5개의 주요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 다카야마는 상인들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했고, 그들은 가나모리 가문의 통치 하에 부를 축적했다.

1695년 도쿠가와 막부가 히다 지역을 직접 지배하게 되자, 가나모리 가문의 번주와 가신들은 히다를 떠났고, 다카야마는 상인 및 장인들의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다카야마의 아름다운 거리 풍경의 대부분은 에도 시대(1603~1867)에 상인 및 장인들이 살던 ‘마치야(町家: 상가주택)’로 구성되어 있다.

목조 가옥이 밀집해 있던 다카야마 마을은 한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주변으로 확산되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1729년부터 1832년 사이에는 다카야마의 대부분이 소실된 대규모 화재가 5차례나 발생했으며, 그때마다 마을이 재건되었다. 1783년에는 소방단이 결성되었는데, 이때 주로 사용된 진화 방법은 불타는 가옥 주변의 건물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부유한 집안에서는 귀중품을 지키기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는 흙벽으로 커다란 창고를 짓기도 했다.